

화성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7	.	.	.	7
신 문	7	.	.	.	7
TV(방송)	.	.	.	.	.
기 타	.	.	.	.	.



경기도소방

화성소방서

언론 보도 사항 목차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화성소방서, “신속, 정확 소생술로 한 가장 생명 살려”	화성인터넷 신문	·	1
2	화성소방서,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도민일보	·	2
3	화성소방서, 신속하고 정확한 소생술로 살려낸 한 가장의 생명	경기매일	·	3
4	화성소방서,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도민일보	06	4
5	화성소방서, 재난환경 고려한 소방전술평가 실시	중부일보	·	5
6	경기도소방,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의 경연대회 개최	경기일보	·	6
7	화성소방서, 다변화하는 재난 환경 대처 소방전술평가 실시	서울매일	11	7

화성소방서, “신속, 정확 소생술로 한 가장 생명 살려”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06/26 [22:03]



© 화성인터넷신문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6월1일 향남읍 행정리의 주택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50대, 남)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생을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119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구급대원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복과 향남119안전센터 펄블런스 대원 소방장 양병열, 소방사 남태호, 신희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안 쉬고 의식이 없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 이후 구급대원 소방장 김준호, 소방사 장건이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배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중이었고, 환자는 무 맥박, 무의식에 비정상적인 심 정지 호흡을 하는 상태,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스마트 응급 의료지도(BALS)하에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대원들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3회 전기충격을 실시했고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는 치료 후 3일 만에 퇴원해 화성소방서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며, 새로 출발 하는 마음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고, 매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심정지 출동을 할 때도 보호복을 착용해,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힘든 출동이였지만 환자가 소생해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소방공무원으로써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HOME > 사회 > 사회일반

화성소방서,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 - < >

용만중 기자 | 승인 2020.06.28 14:49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월 1일 향남읍 행정리의 주택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50대, 남)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목과 향남119안전센터 펄블런스 대원 소방장 양병열, 소방사 남태호, 신희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안 쉬고 의식이 없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 했다. 이후 구급대원 소방장 김준호, 소방사 장건이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배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중이었고, 환자는 무맥박, 무의식에 비정상적인 심정지 호흡을 하는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스마트 응급 의료지도(SALS)하에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3회 전기충격을 실시했고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환자는 치료 후 3일만에 퇴원해 화성소방서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하며, 새출발 하는 마음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고, 매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려한다고 전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심정지 출동을 할 때도 보호복을 착용해,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힘든 현장이었지만 환자가 소생해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소방공무원으로써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용만중 기자 | dmlbo@naver.com

<저작권자 © 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성소방서, 신속하고 정확한 소생술로 살려낸 한 가정의 생명

김창주 기자 | 승인 2020.06.28 18:45 | 댓글 0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월 1일 향남읍 행정리의 주택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50대, 남)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묵과 향남119안전센터 펄블런스 대원 소방장 양병열, 소방사 남태호, 신회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안 쉬고 의식이 없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구급대원 소방장 김준호, 소방사 장건이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배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중이었고 환자는 무맥박, 무의식에 비정상적인 심정지 호흡을 하는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스마트 응급 의료지도(SALS)하에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3회 전기충격을 실시했고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환자는 치료 후 3일만에 퇴원해 화성소방서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한 삶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하며, 새출발 하는 마음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고, 매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려한다고 전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심정지 출동을 할 때도 보호복을 착용해,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힘든 현장이었지만 환자가 소생해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소방공무원으로써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화성 = 김창주 기자

저작권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성소방서,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월 1일 향남읍 행정리의 주택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50대, 남)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소방장 이경춘, 소방교 이정목과 향남119안전센터 펌블런스 대원 소방장 양병열, 소방사 남태호, 신희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안 쉬고 의식이 없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구급대원 소방장 김준호, 소방사 장건이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배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중이었고, 환자는 무맥박, 무의식에 비정상적인 심정지 호흡을 하는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스마트 응급 의료지도(SALS)하에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3회 전기충격을 실시했고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환자는 치료 후 3일만에 퇴원해 화성소방서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하며, 새출발 하는 마음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고, 매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려한다고 전했다.

/용만중 기자

화성소방서, 재난환경 고려한 소방전술평가 실시

신창균 | 기사입력 2020.06.28 15:09 | 최종수정 2020.06.28 15:09 | 댓글 0



화성소방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외근부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행하는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진행했다.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개인의 기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 위주에서,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에서 현장대응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소방공무원 기본 소양 뿐만 아니라 특수재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기평가 및 팀 단위 실기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소방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평가 대상이 300여 명인 점을 고려해 평가장 분리,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등 감염방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기존의 평가 방식을 벗어난 평가를 통해 전문적인 소방전술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창균기자

경기도소방,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의 경연대회 개최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 송고시간 2020.06.28 18:53 | 댓글 0



경기도소방이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강사 강의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는 지난 24일 여주 컨벤션호텔에서 2020년 제5회 경기도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강사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대회는 도내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등에 의거 1년에 4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하는 학생안전교육과정과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 시 수준 높은 재난안전 교육을 제공하고자 각 지역 우수 강사들이 참여해 강의기법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의용소방대원 중 전담 교수요원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 총 2천158회 걸쳐 13만4천165명에게 용급처치 등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심폐소생술분야 21개팀 42명, 생활안전분야 11개팀 11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그 결과 심폐소생술 분야에서는 과천시방서 의용소방대 한정희·장근화 대원,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화성소방서 여주의 대원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수상자들은 앞으로 있을 12월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전국대회에서 안성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이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다.

김해령기자

저작권자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화성소방서, 다변화 하는 재난

환경 대처 소방전술평가 실시

국승우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날로 다변화 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외근부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행하는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소방전술훈련은 예전 개인의 기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 위주였으나 이번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에서 현장대응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와 관련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뿐만 아니라 특수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내용을 위주로 필기 평가 및 팀 단위 실기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소방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평가대상이 300여 명인 점을 고려해 평가장을 분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등 감염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조창래 소방서장은 이번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기존의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시대에 걸 맞는 평가를 통해 전문적인 소방전술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